



MVPR-2008-08

VIP REPORT

2008. 3. 4.

- IT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 IT제조업에서 IT서비스업으로의 전환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편집위원 : 이부형, 홍순직, 주원,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T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 IT제조업에서 IT서비스업으로의 전환

Executive Summary i

1. IT서비스업의 중요성과 현황 1

2. IT서비스업의 부진과 원인 3

3. IT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11

■ HRI 경제 지표 14

1. IT서비스업의 중요성과 현황

IT서비스업은 최적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당 업무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기존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¹⁾.

IT서비스업은 소프트 인프라 산업으로 다른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중심산업이다. 또한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 구현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세와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더욱이 2003년을 기점으로 IT서비스업의 취업계수(4.2)와 취업유발계수(9.4)가 처음으로 IT제조업의 취업계수(3.6)와 취업유발계수(8.3)를 추월하고 있어, IT서비스업은 미래 고용창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IT제조업과 달리 한국의 IT서비스업은 미국 등 IT선진국에 비해 구조와 내용 면에서 발전 정도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예로써 한국의 IT제조업은 반도체, LCD, 휴대폰 등에서 세계적인 제품과 스타기업을 배출하였지만, IT서비스업에서는 세계적인 제품과 기업을 육성시키지 못했다. 아울러 IT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 부가가치, 국가경제 기여도 등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2. IT서비스업의 부진과 원인

○ 부진 현황

한국의 IT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여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IT서비스업이 IT제조업보다 열위에 있다. 그러나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은 IT서비스업이 IT제조업보다 우위에 있다.

(생산액) 2006년 기준, 국내 IT산업의 생산액 248조 원 중 IT제조업이 70%를, IT서비스업이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1조 93억 달러(100%) 규모의 IT시장에서 IT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하드웨어 포함) 시장이 5,370억 달러(53%), 소프트웨어 시장이 1,260억 달러(12%)를 차지할 정도로 IT서비스업이 IT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1) 『제조업의 IT서비스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산업연구원, 2007.

(부가가치) 2006년 기준, 국내 IT부가가치 114조 원 중 IT제조업 비중이 76%인 반면 IT서비스업의 비중은 23%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IT부가가치에서 IT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인 반면에 IT서비스업의 비중은 73%이다.

(고용) 한국은 전체 IT상시근로자 72만 8,000명 중에서 IT제조업이 66%이고, IT서비스업이 34%를 차지한다. 미국은 전체 IT 고용인력 470만 명 중에서 IT제조업의 비중이 37%이고 IT서비스업의 비중이 63%로 우리와 상반된 구조이다.

(전산업 대비 IT산업의 비중) 한국의 전(全)산업 대비 IT산업의 비중은 13%로 핀란드(15%), 아일랜드(12%)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IT 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차이가 크다. IT제조업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서 OECD 국가 중 2번째이다. 이에 비해 IT서비스업이 서비스업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로서 OECD 국가 중 16번째에 그친다.

○ 부진의 원인

한국 IT서비스업이 부진한 원인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정책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①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와 ② IT활용서비스업²⁾의 부진을, 공급측면에서는 ③ I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부진과 ④ IT서비스업의 저임금·저생산성·저부가형 산업구조를, 정책측면에서는 ⑤ IT서비스업 관련 입법지연과 과도한 규제를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 한국은 IT를 경제전반에 이용하는 활용도가 낮아 IT서비스 수요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웹페이지, 전자정부 등 IT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일견 IT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인프라가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비중은 낮고, 개인의 오락이나 놀이 활동에 사용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IT를 이용해 판매나 구매 등 실제 비즈니스를 이행하는 비율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거나 중간 수준이다. IPTV³⁾의 보급, 4세대 이동통신의 발전 등 차세대 IT활용을 위한 전환 속도도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하여 지체되고 있다.

(IT활용서비스업의 부진) 한국에서는 IT서비스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IT활용서비스업이 부진하여 이들 업종의 IT서비스 수요가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2) OECD에서는 투자재나 중간재로서 IT역할이 큰 "도소매,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산업"을 IT활용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3)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방송 콘텐츠 등을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통융합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1996~2005년까지 국내 IT활용서비스업의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금융·보험업만 증가하고, 도·소매업은 감소, 사업서비스업은 정체하였다. **결과적으로 IT활용서비스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21%에서 2005년 19%로 오히려 2%p 하락하였다.**

국내 IT활용서비스업의 IT서비스 활용수준이 낮은 것은 IT활용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IT활용서비스 중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도·소매, 사업서비스의 노동생산성은 전산업 노동생산성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IT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해 주어야 하는 산업이 IT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OECD 선진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IT활용서비스업의 IT활용도 제고를 통해 IT서비스업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업종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I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부진) 2000년 이후 I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담보 상태를 유지하여 전체 설비투자 대비 IT서비스 투자 비중도 계속 감소하였다. 2000년 9조 원이던 IT서비스업 투자는 2005년 11.4조 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체 설비투자 대비 비중은 10.8%에서 7.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IT산업 투자액 중 IT서비스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기준으로 32.5%로 IT제조업의 절반에 그쳤다.

한편 전(全)산업 대비 IT산업(IT제조업과 I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역시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0~2005년 까지 총고정자본형성 중 국내 IT투자 비중 평균은 16.9%으로 미국(33.2%), 스웨덴(26.6%), 핀란드(26.6%), 호주(22.6%), 영국(21.8%) 보다 낮다.

(IT서비스업의 저임금·저생산성·저부가가치 구조) IT서비스업의 기반구조가 부실하여 IT서비스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IT서비스업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분야에 저임금·저생산성 특성이 고착화 되어 우수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IT서비스업에 대한 R&D 지출이 부족하여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이 확보되지 못하고 저부가가치 응용서비스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IT서비스 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무리한 저가수주와 관계사(captive market) 위주의 시장형성 등의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

(IT서비스업 관련 입법지체와 과도한 규제) 방송통신융합 관련법, IPTV 도입을 위한 법 등 IT서비스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법안처리가 신속하지 못해서 관련 법제도가 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정기국회 처리가 예상되었던 IT관련 법안 300여건 가운데 2007년 10월까지 심의가 진행된 법안은 66건(24%)에 지나지 않는다. IT서비스업 관련 법안은 관련 정책 집행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시급한 재·개정이 필요하지만 부처 간 갈등, 사업자간 이익조정 등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IT관련 규제가 정부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IT서비스업과 IT활용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비율이 특히 높은 것도 문제이다.**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8,083건의 규제 중 16.5%가 IT서비스 및 IT활용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3. IT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수요측면) 첫째, IT서비스 수요 증가를 위하여 IT활용서비스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Ovum 한국경제리포트⁴⁾도 한국의 낮은 IT활용도를 지적하며 IT활용도를 높여 IT산업 성장과 타산업의 생산성을 함께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한미 FTA,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금융, 유통, 물류 등 서비스산업의 IT활용도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둘째, IT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미래 수요를 찾아야 한다.** 미래 IT서비스업의 수요는 IT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되고 다시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독립서비스 위주의 IT서비스업 발전전략에서 바이오, 나노 등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해 타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연계전략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공급측면) 첫째, IT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간 IT서비스업은 지속적인 소극적 투자로 성장동력 확보가 미흡했고 원천 경쟁력이 빈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디지털컨텐츠, IT융합서비스 등 투자위험은 높더라도 시장선점 효과가 크고 기대수익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선순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글로벌 시장공략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협소한 국내시장으로는 양적 질적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IT서비스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인도의 경우 IT서비스업 발달 초기부터 첨단 IT서비스를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전문화·특성화를 추구하여 수출산업화 하였다.

(정책측면) 첫째, 전자정부 등 국가 정보화 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최대의 IT서비스 수요처인 정부의 지속적 사업집행이 요구된다. u-KOREA 프로젝트의 IT839 전략 등 국가 IT사업을 일관되게 집행하여 IT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미래 국가 IT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IT서비스업 지원제도와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M&A 활성화, 세금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IT서비스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법적 제도적 정비해야 한다. 또한 무리한 저가수주와 관계사 위주의 시장형성이 되지 않도록 공수산정, 제안서 비용보상 등에서 정부차원의 조율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IT서비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 지연과 과도한 규제를 하루속히 해소해야 한다.** 방송·통신융합법 제정 지연, IPTV 법 처리 지연 등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주요 IT서비스의 상용화가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IT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융합서비스, 신규서비스의 개발이 지연되고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등록(2007.2월 기준)된 8,083건의 규제 중 16.5%가 IT서비스 및 IT활용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은 IT서비스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의 단면이다.

4) 영국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글로벌 IT 컨설팅 전문그룹인 OVUM은 한국경제 리포트 “Maximizing IC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2006)”를 통해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IT산업의 문제를 지적함

IT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1. IT서비스업의 중요성과 현황

- (정의) IT서비스업은 최적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당 업무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기존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분류⁵⁾) IT서비스업의 분류 기준은 OECD, 정보통신부, 한국은행 등 주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광의의 기준과 협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협의의 분류) 정보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IT컨설팅, 시스템통합(SI), 시스템관리(SM), IT아웃소싱/BPO⁶⁾, IT교육·훈련의 5가지로 분류
 - (광의의 분류) 협의의 분류에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추가함
- (미래 견인 산업) IT서비스업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견인하는 중심 산업이자,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 구현을 위한 필수산업임
 - IT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고용흡수력이 크고, 소프트 인프라 산업으로 타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또한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 구현을 위한 필수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세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임
- (고용 창출 산업) 2003년을 기점으로 IT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IT제조업의 그것을 추월하고 있어 IT제조업을 대신한 고용창출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2003년 IT제조업의 취업계수는 3.6명으로 95년 14.3명, 2000년 5.8명에 비하여 급감함
 - IT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95년 12.9명, 2000년 5.3명, 2003년 4.2명으로 급감하였으나, 2003년 IT제조업의 취업계수는 4.2명은 IT제조업의 취업계수를 처음으로 추월한 수치임

5) 『<참고> 주요기관별 IT산업 분류』 참조

6)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의 약자

- 산출액 10억당 유발되는 직·간접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도 2003년을 기점으로 IT서비스업(9.4명)이 IT제조업(8.3명)을 추월하였음
- 두 산업의 1996~2005년 고용탄성치⁷⁾를 비교해 보면, IT서비스업(0.72)이 IT제조업(-0.13)보다 높아 향후 고용창출산업으로의 역할이 기대됨

<IT산업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

		1995	2000	2003
취업계수	전산업(명)	15.9	11.8	10.4
	IT산업(명)	13.8	5.6	3.8
	▪ IT제조업(명)	14.3	5.8	3.6
	▪ IT서비스업(명)	12.9	5.3	4.2
취업유발계수	전산업(명)	26.5	19.4	16.9
	IT산업(명)	25.1	14.2	8.6
	▪ IT제조업(명)	28.5	15.2	8.3
	▪ IT서비스업(명)	17.7	12.1	9.4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7.

주: 1) 취업계수 = 취업자수/2003년가격기준 불변산출액(10억원).

2) 취업유발계수: 10억원(2003년 가격기준)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

- (현황)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IT제조업과 달리 한국의 IT서비스업은 미국 등 IT선진국에 비해 구조와 내용 면에서 매우 미흡함

- 한국의 IT제조업은 반도체, LCD, 휴대폰 등에서 세계적인 제품과 스타기업을 배출하였지만, IT서비스업에서는 세계적인 제품과 기업이 없음
- IT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 부가가치, 국가경제 기여도 등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며, 최근 성장한계도 노출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IT서비스업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 IT서비스업 부진의 원인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7) 고용탄성치 = 고용증가율 / 실질성장율

2. IT서비스업의 부진과 원인

□ 부진 현황

- (종합) 한국의 IT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반면, IT서비스업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하여 한국의 IT산업은 불균형 상태에 있음
 - 한국은 IT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여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IT서비스업이 IT제조업 보다 열위에 있음
 - 반면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은 IT서비스업이 IT제조업 보다 우위에 있음
- (생산액) 2006년 기준, 국내 IT산업의 생산액 248조 원 중 IT제조업이 174조 원으로 약 70%를, IT서비스업이 73조 원으로 약 30%를 차지함
 -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1조 93억 달러 규모의 IT시장에서 통신서비스(하드웨어 포함) 시장이 5,370억 달러, 소프트웨어 시장이 1,260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IT서비스업이 IT산업을 주도함

<IT산업별 생산액 추이>

(단위: 조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IT제조업(조원)	109.9 (68)	124.9 (69)	139.1 (70)	164.6 (72)	168.9 (71)	174.9 (70)
IT서비스업(조원)	51.1 (32)	61.2 (33)	60.0 (30)	64.7 (28)	69.2 (29)	73.2 (30)
IT산업(조원)	160.9 (100)	186.1 (100)	199.2 (100)	229.2 (100)	238.1 (100)	248.1 (100)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부가가치) 2006년 국내 IT산업 부가가치 114조 원 중 IT제조업 비중이 76%(86.6조 원)인 반면 IT서비스업의 비중은 23%(26.2조 원)에 그침
 -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IT산업 부가가치에서 IT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인 반면에 IT서비스업의 비중은 73%임
- (고용) 한국은 전체 IT 상시근로자 72만 8,000명 중에서 IT제조업이 48만 명(66%)이고, IT서비스업이 24만 9,000명 (34%)을 차지함
 - 미국은 전체 IT 고용인력 470만 명 중에서 IT제조업의 비중이 37%이고 IT서비스업의 비중이 63%로서 우리와 상반된 구조임

<IT부문별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추이>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IT부가가치(조원)	57.0	63.7	67.7	78.2	78.0	113.6
▪ IT제조업 비중(%)	66.8	59.1	60.1	65.2	63.8	75.5
▪ IT서비스업 비중(%)	33.2	40.9	39.9	34.8	36.2	24.5
IT고용(만명)	54.8	63.9	65.6	65.8	71.7	72.8
▪ IT제조업(만명)	36.0	40.8	43.1	43.0	47.7	48.0
▪ IT서비스업(만명)	18.8	23.2	22.5	22.8	24.0	24.9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전산업 대비 IT산업의 비중) IT제조업과 IT서비스업의 위상차이가 큼
 - 한국의 전(全)산업 대비 IT산업의 비중은 13%로 핀란드(15%), 아일랜드(12%)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 IT제조업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서 OECD 국가 중 2번째임
 - IT서비스업이 서비스업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로서 OECD 국가 중 16번째임

□ 부진의 원인

- IT서비스업이 부진한 원인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정책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 수요측면

- (첫째, 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 한국은 IT를 경제전반에 이용하는 활용도가 낮아 IT서비스 수요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 인터넷, 웹페이지, 전자정부 등 IT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⁸⁾ 일견 IT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있으나,
 - 한국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비중보다 개인활동에 사용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선진국에 비하여 IT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은 편임
 - 전자상거래나 e-business 등 IT를 이용해 판매나 구매 등 실제 비즈니스를 이행하는 비율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거나 중간 수준임
 - IPTV의 보급, 4세대 통신으로의 전환 등 차세대 IT활용을 위한 환경전환도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하여 지체되고 있음

<1995~2003년 중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 %p, %)

	경제 성장률	자본		노동		총요소 생산성
		IT	비IT	노동시간	노동의 질	
한국	4.09	0.46 (11.2)	1.67 (40.8)	0.86 (21.0)	0.26 (6.4)	0.85 (20.8)
G7	2.56	0.69 (27.0)	0.74 (28.9)	0.28 (10.9)	0.18 (7.0)	0.67 (26.2)
미국	3.56	0.88 (24.7)	1.01 (28.4)	0.50 (14.0)	0.17 (4.8)	0.99 (27.8)
대만	4.06	0.54 (13.3)	2.15 (53.0)	0.43 (10.6)	0.25 (6.2)	0.70 (17.2)
일본	1.39	0.56 (40.3)	0.26 (18.7)	-0.32 (-23.0)	0.22 (15.8)	0.67 (48.2)
싱가포르	3.91	0.70 (17.9)	1.62 (41.4)	1.06 (27.1)	0.18 (4.6)	0.35 (9.0)

자료: 한국은행,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재인용.

주: ()안은 경제성장기여율(%).

8) 2005.11월 세계정보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는 우리나라가 미국 등 40개 평가대상국 중 1위, 2005년 중 IMD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인프라 부문 순위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함

<2005년 중 산업별 인터넷 판매 및 구매 비중>

(단위: %)

	관 매			구 매		
	제조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전 체	제조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전 체
한국	8.0	5.3	7.7	23.4	28.7	29.5
영국	37.3	20.0	25.2	49.8	56.7	50.8
일본	20.1	-	12.9	-	-	-
호주	20.6	11.1	17.2	32.6	41.6	45.2
핀란드	-	-	17.4	-	-	19.1
캐나다	10.2	8.6	10.7	61.2	61.3	60.8
아일랜드	27.8	14.8	21.0	42.5	47.7	40.6

자료 :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6.

- (둘째, IT활용서비스업의 부진) 한국은 IT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노동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IT활용서비스업이 부진하여 이들 업종에 대한 IT서비스 수요가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임

- 1996~2005년까지 국내 IT활용서비스업의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금융·보험업만 증가하고, 도·소매업은 감소, 사업서비스업은 정체하여,
- IT활용서비스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21%에서 2005년 19%로 오히려 2%p 하락
- 국내의 경우 IT서비스업 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IT활용서비스업의 부진이 IT서비스업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국내 IT활용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IT활용서비스	21.2	21.1	20.6	20.3	19.9	20.0	21.1	20.4	19.4	19.3
도소매업	38.6	38.0	36.2	38.8	39.7	39.4	36.8	35.7	35.7	35.4
금융보험업	36.2	36.0	37.7	35.9	34.4	35.8	38.7	39.1	38.6	39.0
사업서비스업	25.2	26.1	26.1	25.3	25.8	24.8	24.4	25.2	25.6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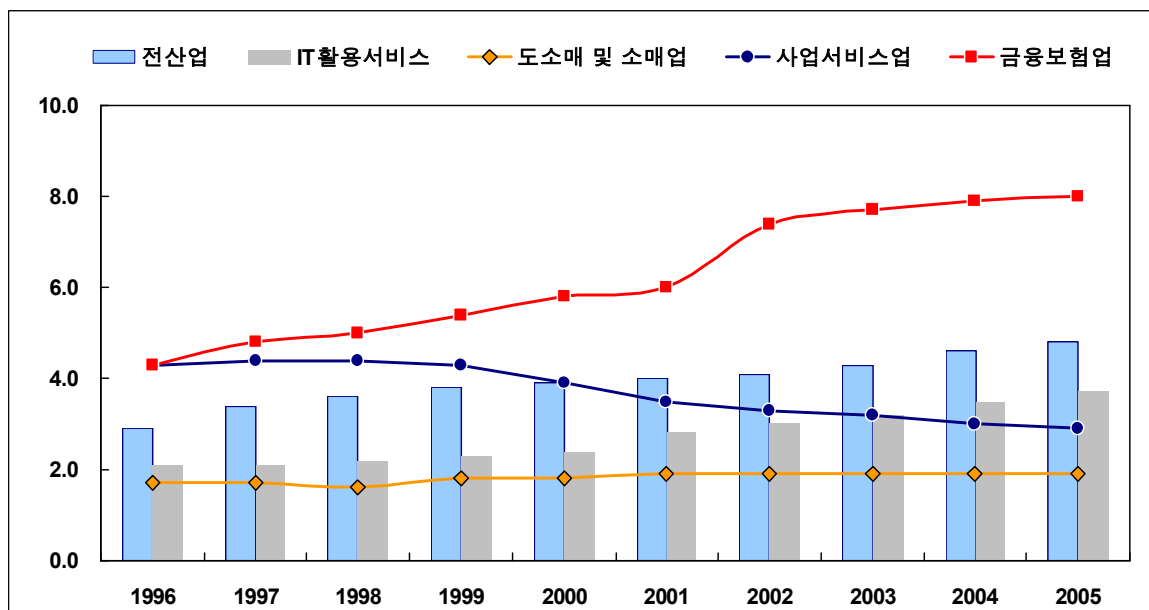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산업의 파급효과 분석과 산업간 불균형 성장 해소방안 연구』, 2007.

- 주 : 1) IT활용서비스 비중은 총부가가치에서 IT활용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2)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IT활용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 국내의 IT활용서비스업이 부진하고 IT서비스 활용수준이 낮은 것은 IT 활용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역시 OECD 선진국과 대비되는 현상임
 - 2000년 이후 IT활용서비스 중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도소매, 사업서비스의 노동생산성은 전산업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이는 IT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해 주어야 하는 산업이 IT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 반면 OECD 선진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IT활용서비스업의 IT활용도 제고를 통해 IT서비스업의 발전을 전인함과 동시에 업종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음

<IT활용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단위: 백만원)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산업의 파급효과 분석과 산업간 불균형 성장 해소방안 연구』, 2007.

○ 공급측면

- (셋째, I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부진) 2000년 이후 국내 IT서비스업에 투자가 계속 담보 상태에 있으며, 전체 설비투자 대비 IT서비스 투자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9조 원이던 IT서비스업 투자는 2005년 11.4조 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체 설비투자 대비 비중은 10.8%에서 7.9%로 오히려 감소함
- 전체 IT투자액 중 IT서비스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기준으로 32.5%로 IT제조업에 비하여 크게 떨어짐

<IT투자 추이>

(단위: 조원, %)

	1996	2000	2002	2004	2005
IT투자	17.9 (18.4)	32.2 (35.7)	33.1 (5.2)	31.8 (0.8)	35.0 (10.2)
▪ IT제조업	12.1 (19.5)	23.2 (41.8)	22.2 (1.2)	20.8 (0.7)	23.6 (13.5)
▪ IT서비스업	5.8 (16.3)	9.0 (22.3)	11.0 (14.3)	11.0 (0.9)	11.4 (4.0)
전체 설비투자 ¹⁾	83.6	83.2	83.6	85.5	89.7
총고정자본형성	196.6	179.9	191.5	203.2	207.8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

주 : 1) 무형고정자산투자 포함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한편, 국내 전체 IT산업에 대한 투자도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2000~2005년 까지 총고정자본형성 중 국내 IT투자 비중 평균인 16.9%는 미국(33.2%), 스웨덴(26.6%), 핀란드(26.6%), 호주(22.6%), 영국(21.8%) 등 보다 매우 낮은 수준
- **(넷째, IT서비스업 저임금·저생산성 구조) IT서비스업의 기반 구조가 부실하여 IT서비스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 IT서비스업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분야에 저임금·저생산성 특성이 고착화 되어 우수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음
 - IT서비스업에 대한 R&D 지출이 부족하여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의 부족과 저부가가치 응용서비스에 쏠림이 심화되고 있음
 - IT서비스 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무리한 저가수주와 관계사 위주의 시장형성 등의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음

<산업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변화>

(단위: 백만원)

	2005년	2006년
전 산업	70	68
어업	50	56
광업	69	72
제조업	85	83
건설업	39	34
서비스업	66	67
도·소매업	72	64
IT서비스업(아웃소싱 포함)	55	3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국과 미국의 IT서비스업의 R&D 지출액 비교>

한국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평균증가율 (2001~2004)
	R&D 지출액(십억원)	280	262	254	325	5.1%
1인당 R&D 지출액(백만원)	2.02	1.76	1.27	1.51	- 9.4%	
미국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평균증가율 (2001~2004)
	R&D 지출액(십억원)	14,304	16,800	20,832	22,368	16.2%
	1인당 R&D 지출액(백만원)	7.49	7.87	9.60	11.42	15.1%

자료: 임준, 『IT서비스 산업의 공정경쟁과 수익성 제고』, 2006. 수정재인용.

○ 정책측면

- (다섯째, IT서비스업 관련 입법지연과 과도한 규제) 방송통신융합 관련 법, IPTV 도입법 등 IT서비스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법안처리가 신속하지 못해서 관련 법제도가 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현상이 반복
 - 2007년 정기국회 처리가 예상되었던 IT관련 법안 300 여건 가운데 2007년 10월까지 심의가 진행된 법안은 66건(24%)에 지나지 않음
 - 특히, 'u시티건설지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처리 되고 있지 못함
 - IT서비스업 관련 법안은 관련 정책 집행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시급한 재·개정이 필요하지만 부처 간 갈등, 사업자간 이익조정에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IT관련 주요법안>

상임위	법안수	주요법안
과기정위	99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산자위	16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 등
문광위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통특위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 등

자료 : 전자신문, 2007. 7. 5.

- IT관련 규제가 정부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IT서비스업과 IT활용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비율이 특히 높음
- 방송·통신융합법의 경우, 방송정책, 방송사업, 유통, 심의 등에 따라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위 등에 규제가 혼재되어 있음
-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8,083건의 규제 중 16.5%가 IT서비스 및 IT활용서비스에 집중됨

<IT관련 서비스 행정규제 현황>

부문별	규제등록건수	부문별 비중
총 규제등록 수	8,083 건	(100.0%)
IT관련서비스	1,331 건	(16.5%)
· 금융·통화	822 건	(10.9%)
· 운송·물류	177 건	(2.2%)
· 정보·통신	272 건	(3.4%)

자료 : 국무총리실 규제등록건수, 2007. 2월 현재.

3. IT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 수요측면

- (IT활용서비스업 육성) 금융보험업과 방송·통신업 등 IT활용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IT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임
 - Ovum 한국경제리포트는 한국의 낮은 IT활용도를 지적하며 IT활용도를 높여 IT산업 성장과 타산업의 생산성을 함께 향상시킬 것을 권고함
- (미래 IT융합서비스 발굴) 향후 IT서비스업의 수요는 IT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되고 다시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서비스-기기-모델'간의 동반성장 전략으로 IT서비스 수요를 창출
 - 앞으로 IT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IT-NT, IT-BT 등 타 산업과 연계된 융합기술과 서비스가 주도할 것임
 - 따라서 독립서비스 위주의 IT서비스업 발전전략에서 바이오, 나노 등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해 타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연계전략으로 수정

○ 공급측면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그동안 IT서비스업은 소극적 투자로 성장동력확보가 미흡했기에 투자를 통해 원천 경쟁력을 높여야 함
 - IT서비스는 투자위험은 높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크고 기대수익이 높으므로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
 - 투자를 통한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고부가가치 선순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를 유인할 수 있음
- (글로벌 시장공략) 협소한 국내시장으로는 양적 질적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IT서비스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함
 - 인도의 경우 IT서비스업 발달 초기부터 첨단 IT서비스를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전문화·특성화를 추구하여 수출산업화 하였음

○ 정책측면

- (국가차원의 IT사업 집행) 전자정부 등 국가 정보화 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최대의 IT서비스 수요처인 정부의 지속적 사업집행이 요구됨
 - u-KOREA 프로젝트의 IT839 전략 등 국가 IT사업의 일관된 집행으로 IT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면서 국가 IT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
 - 또한 ACE-IT(앞서가는 IT, 융합·창조하는 IT, 확산·혁신하는 IT)등 국가 IT 비전수립과 계획 실행의 일관된 추진이 요구됨

- (지원제도와 공정경쟁체제 확립) M&A 활성화, 세금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IT서비스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 소프트웨어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상하고 무리한 저가수주와 관계사 위주의 시장형성이 되지 않도록 공수산정, 제안서 보상 등에서 정부차원의 조율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규제의 선진화) IT서비스업 관련 법안과 규제가 IT서비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방송·통신융합법 제정 지연, IPTV 법 처리 지연 등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상용화는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반복됨
 - 미국, 일본 등에 비해 IT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융합서비스, 신규 서비스의 개발이 지연되고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IT서비스업은 지식재산, 고용, 수출의 독립적 가치창출은 물론,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동맥으로 규제과다는 타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



이주량 연구위원 (jryanglee@hri.co.kr, 02-3669-4334)

<참고>

<주요기관별 IT산업 분류>

용어	OECD ICT Industry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정보통신산업
포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 절연 및 케이블 장비 ○ 반도체 및 전자부품 ○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 측정기기 및 검사기기 등 ■ 서비스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기 도매 ○ 정보통신기기 임대 ○ 통신서비스 ○ 컴퓨터 관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서비스 ○ 별정통신서비스 ○ 부가통신서비스 ○ 방송서비스 ■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기기 ○ 정보기기 ○ 방송기기 ○ 부품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및 사무기기 ■ 반도체 및 전자부품 ■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 전기기계 및 장치 ■ 정밀기기 ■ 통신 ■ 방송 ■ 사업관련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관련서비스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료: 한국은행,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07.

주: 본 보고서에서는 정보통신부의 분류체계에 따라 IT제조업은 정보통신기기, IT서비스업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P)	2007(E)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4.5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4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3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6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2.5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5	8.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66	61	-30	-5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10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0	3,700	4,11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3.8)	(11.1)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90	4,05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6.1)	(12.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5	3.0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5	91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0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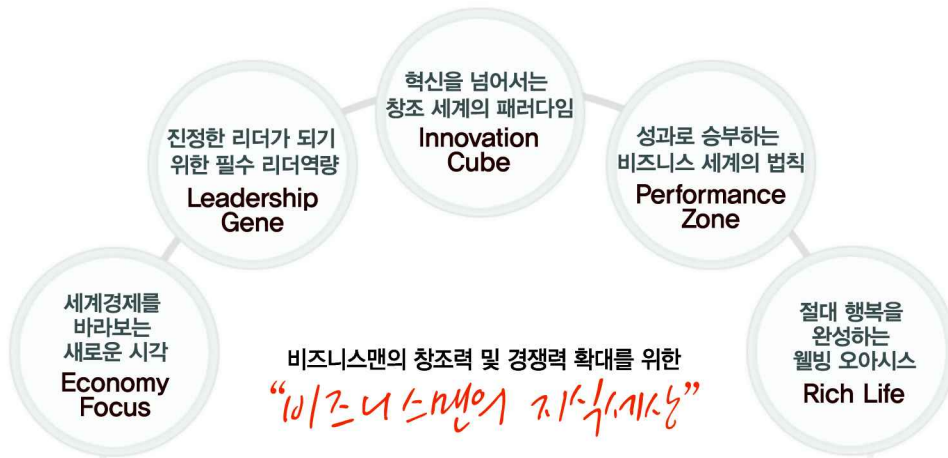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外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外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外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